

마우이에서 온 편지

헤가이 연구소(Haggai Institute)에서

김승욱

기학연 회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 있는 Haggai Institute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8일이나 되는 긴 기간의 훈련이어서 망설였지만, 모처럼 일상적인 일에서 떠나서 심신을 새롭게 할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회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헤가이 연구소(Haggai Institute)는 존 헤가이 박사가 1969년에 세운 선교훈련센터입니다. 그는 식민지 역사를 지닌 제3세계에서 서구인들에 의한 선교활동에 열매가 없음을 깨닫고, “가서... 제자 삼아” 라는 말씀 중에 “가서” 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선교사의 파송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제는 “제자 삼아” 에 초점을 맞추어 현지인들에 의한 선교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3세계의 기독교 리더를 이곳에 데려다가 리더십 훈련을 시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 한 달간 훈련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개인당 천만 원이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 현지 리더들로 하여금 선교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열매가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곳 훈련에 참여하는 조건은 최소한 2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이곳에서 배운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곳에서 느낀 점을 회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연구소는 싱가포르와 이곳 하와이의 마우이 섬 두 곳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이집트, 바레인, 알제리아, 가봉, 잠비아, 짐바브웨, 우간다 등 28개국에서 온 60명의 리더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목회자가 절반정도로 제일 많고 사업가, 정치가, 의사, 교수 등 각 분야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아시아인 70퍼센트, 중남미 15퍼센트, 아프리카 15 퍼센트로 인구비례로 선발을 합니다. 영어, 중국어와 아랍어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여성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습니다. 설립자 존 헤가이 박사는 제3세계 특히 아시아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는 제1세계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히 아시아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일본인은 없으며 한국인으로는 장신대학교의 소기천 교수(신약학)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 이외에 75분 강의가 6개 진행되며, 토요일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일본인 소유의 특급 호텔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마우이섬은 하와이의 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힙니다. 기후도 미국 전체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곳 훈련원에서의 훈련이 쉴 틈 없이 진행되지만, 훈련 자체가 쉽습니다. 내 일상의 일에서 떠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입니다. 1900년에 세계 기독교 인구의 80퍼센트가 서구인이었는데, 백년이 지난 현재 서구인의 비중이 40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서구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3세계, 특히 구 공산권에서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곳에 온 형제들은 전부 제3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생활을 해 보니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3세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은 대단했고, 특히 기독교와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부는 한류 바람을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드라마 왕국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수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말고 더 좋은 것을 제3세계에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한국 교회의 프로그램과 수준이 매우 앞서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우 유익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매우 새롭게 느끼고 감명을 많이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국이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기학연에서 그동안 20년간 강조했던 신앙과 삶의 통합도 이 강연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기독교계에서 한국은 단연 선진국인데, 삶과 신앙의 통합을 강조하던 기학연의 활동은 단지 한국에서만 선구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씨앗이 한국 땅에 뿌려져 결코 헛되이 썩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제3세계 각지에서 온 훌륭한 지도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을 배우고, 인종과 관계없이 한 형제 됨을 나누고 누린다는 것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생활수준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온 크리스천들이 어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방식은 똑같은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정말 성령은 하나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느낌이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낀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넷째로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한번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다고 교수가 된 저로서는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주말에도 시험공부의 부담이 있으면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것처럼, 요즈음에도 주일에 조차 원고마감이나 강의 준비 등으로 마음이 분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으니, 집에까지 일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일과 쉼을 구분하지 않는 삶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이 느끼는 퇴근과 휴일의 기쁨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수는 긴 방학이 있어서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강의만 없을 뿐이지 계속적인 원고마감과 약속으로 인해서, 연속된 긴장 속에 시간에 쫓기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일을 집에까지 가져오지 않고, 주말에는 일을 놓으려고 마음을 여러 번 먹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4주간이라는 긴 훈련에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다 잊고 안식년을 보내는 기분으로 말씀보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일에 전념을 하려고 했지만, 이곳에서도 못 다한 일들을 마치느라고 여전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쉬는 막간을 이용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시간을 억지로 떼어놓지 않고는 정말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교회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이제야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라는 명령이 사랑이었음을 다시 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일을 하든 연구직에 종사하던, 개인 사업을 하던 하루를 온전히 떼어 놓아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안식이 없이 진정한 예배가 가능할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 보았습니다. 주일 저녁까지 원고마감이 있는데, 또는 내일 시험인데 주일이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들 진정한 예배가 될까 반문해 봅니다. 마음은 다른데 가있고,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하니 진정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일은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떼어놓는 훈련을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십일조를 떼어놓듯이, 시간도 떼어 놓아 안식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 아이가 주일은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면 염려가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이 바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이 되기 전에 모든 밀린 일들을 하고, 월요일을 위해서 다 준비를 마쳐야 주일에 진정한 쉼이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합니다. 주 5일제를 맞이하여 야외에 교회마다 예배 참석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진정한 예배, 참 안식을 강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매일 저녁 시간에 각 지역이나 국가를 소개하고, 각자의 선교전략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초월해서 모두 함께 얼싸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경제와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을 한국의 특징으로 제시했고, 그 이유는 일제와 공산주의의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한국경제 성장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점으로 지난 25년간 기독교인 숫자가 정체된 것과 북한 핵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 확장이 멈춘 것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북한 핵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지 모르며, 이것을 한국 교회가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80년대까지 복음과 경제가 확장된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다면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참여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클지 몰랐습니다.

한국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각국의 어려움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이 온갖 박해를 견뎌낸 선열들의 순교의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를 맡은 우리는 후손에게 더욱 귀한 신앙의 열매를 물려주어야겠습니다.

기학연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드리며, 평안을 빕니다.

2005년 8월 17일 헤가이 연구소에서 김승욱 올림